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주제어 #세월호참사 #참사 #재난 #생존자 #트라우마 #극복

분류 청소년 > 청소년 문학 > 청소년 에세이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소개

2014년 4월 16일 아침, 제주도로 3박 4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던 커다란 배가 갑작스레 침몰한 것입니다.

325명의 아이들 중 살아 돌아온 아이는 75명. 이 책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의 저자는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저자는 깊은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20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십대 청소년은 이십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아이가 9년간 써 내려 간 희망의 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참사와 생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달리 쓰면 이 책은 ‘세월호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이 북음서처럼 널리 읽히길 바랍니다.

_ 은유(작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저자

읽기 전 활동

1.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알아보시다

무슨 일일까?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50분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 476명 중에서 실종자를 포함해 무려 30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타고 있어서, 이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학생 325명 중에서 생존한 학생은 75명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수색현장
사진: 위키미디어



2014년 5월 1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 위키미디어

왜 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을까? ①

- 1)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로, 우리나라의 한 선박회사가 2013년 중고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화물과 사람을 싣기 위해 개조 및 증축(덧붙여 넓힘)을 진행했습니다.
- 2)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기준보다 많은 화물(짐)과 차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1) 어떤 사고인가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지 생각해 봅시다.

왜 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을까? ②

- 3) 침몰하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서,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은 이 말을 믿고 배가 계속 기울어지는데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재빠르게 탈출을 했습니다.
- 4)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해양경찰)은 적극적으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경보다 늦게 도착한 민간 선박(어선)이 구조했습니다.
- 5) 정부는 나라에서 벌어진 큰일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당시 현장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2) 윗글을 본 기분이 어떤가요? 왜 그런 기분이 드나요?

(3) 이 참사로 나이 어린 학생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나요?

2.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주제어를 다양하게 떠올려 보세요.

#	#	#	#
#	#	#	#

읽기 활동

1.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그려 보고, 왜 그 장면을 꼽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2. 이 책의 저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에 인물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자의 상황	
세월호 참사 전	
세월호 참사 후	

3. 다음은 책의 <그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둡한 배 안에서 우리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점점 느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구명조끼를 꺼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미 걸어서는 객실과 객실 사이를 넘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배가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며 구명조끼를 꺼내 나누어 줬어요. 그 친구 덕분에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친구는 제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객실에서 복도로 저를 끌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전에 잠시, 뒤에 남겨진 친구들의 얼굴을 돌아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쿡쿡 아리는 듯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어떤 얼굴로 보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 곳을 떠나는 저를 원망했을까요.

(1) 이 장면에서 저자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2) 구명조끼를 꺼내 나누어 준 친구, 저자의 손을 잡고 끌어 올려 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3) 마지막 부분에서 배를 빠져나가는 저자를 보며 '남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읽기 활동

1. 책의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 또는 문장 2가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①	
장면 또는 문장	
고른 이유	

②	
장면 또는 문장	
고른 이유	

2. 다음은 책의 <단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장례식장 안은 무척 암울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지만 몇몇 사람은 저의 상태를 보고 단원고 등학교 학생이란 걸 바로 눈치챈 듯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국화를 올렸어요. 그렇지만 정신이 없어서 친구의 부모님께는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잠시 앉아 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더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의 부모님을 다시는 뵙지 못했어요.

그때 그곳에서 “저는 ○○의 친구예요”라고 부모님께 인사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1)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장례식장을 조문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는 상주의 심정은 어떨까요?

(2) 자신이 경험한 가장 슬픈 이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3. 다음은 책의 <자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글 속 졸업을 앞둔 저자에게 짧은 편지를 쓴다고 상상하고 해주고픈 말을 적으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에게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 봄, 그때의 시간 속에 멈춰 있을 텐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 이 학교를 떠나 성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나 역시 친구들과 바다에서 잠들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멈춰진 시간 속에 친구들과 함께 영영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런 괴로움은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갈라놓았고 저는 물으로 멀리 밀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토론 활동 -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 개념 잡기 교통사고와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다를까?

1.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말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_ <KBS 국장 "세월호,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오마이뉴스, 2014.5.4.

[안민석 의원]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세요?"

[황우여 후보자] "국민적, 국가적인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죠... 넓은 의미에는 교통사고에 속할 겁니다."

_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4.8.7.

"재난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재난은 항상 보이지 않는 사회적 선택들, 물에 빠져 죽거나 돌무더기에 깔린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선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_ 주노 디아스, 풀리처상 수상 소설가

- (1) 세월호 참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낡은 배를 사서 무리하게 짐을 실은 회사일까요, 그날 배를 잘못 운전한 선장일까요? 또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은 해경일까요?

(2) 1번의 대답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3) 많은 사람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교한 정치인, 언론인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생각 나누기** 사회적 참사를 이해하자

2. 다음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 재난이 벌어진 뒤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2) 나라가 안전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 2022년 겨울,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바다에서 침몰 - 단원고 2학년 325명을 포함해 476명 탑승 - 어린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가을,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며 수많은 사람이 깔림 - 할로윈데이를 맞아 10만 명이 넘는 군중 모임 - 159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다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에 무리하게 짐을 싣음 - 선장과 승무원이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 -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음 - 재난 콘트롤타워인 정부는 우왕좌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고 가파른 골목길 - 전 세계 축제로 20대 젊은 사람들이 몰렸으나,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및 통제가 준비되지 않음 - 사고 몇 시간 전부터 경찰 신고가 있었으나 뒤늦게 인력이 투입됨 - 현장에 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놓침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짐 - 책임을 두고 분열에 빠짐 - 유가족을 비난하는 여론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짐 - 책임을 서로 떠넘김 - 희생자를 폄하하는 여론 등장

(1)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8년 만에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요?

(2)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토론 활동 - 책임에 대하여

1. 이 글은 세월호 생존학생이 2014년 8월 교황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to. 존경하는 교황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정(가명)이라고 합니다.

1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행복했던 하루였어도 밤마다 잠이 들 때면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날마다 엄마 몰래 눈물을 훔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 곁에 가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이 한심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친구들의 사진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와 병원에 갔을 때, ‘어른들이 말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TV를 보면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나지만 하는데 작은 방안에 갇혀 ‘어른들이 말하는 상담 의사와 우리의 안부를 묻는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상담이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일 괜찮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진정한 치료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버리고 제일 먼저 안전하게 구출된 선장과 그 외의 선원들,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린 바보같이 기다리고만 있었는지, 본질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사과를 하고 이유를 알아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야 곁에 없는 친구들과 유가족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른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 세상에 대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 나쁜 세상을 물려주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_ <단원고 생존학생이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2014년 8월, 출처: 프레시안

(1)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2)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누구일까요?

(3)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과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과를 받게 된다면 그전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봅시다.

2. 이 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34일째 되는 날,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서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출처: 청와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 행위입니다. //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_〈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2014년 5월 19일

(1)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2) 우리 학교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도시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3)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2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책임자의 역할	세월호 참사에서 사과해야 할 점

토론 활동 -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1. 다음은 언론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보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JTBC, 세월호 생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 물의〉

JTBC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질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JTBC는 이날 세월호 생존자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은 몇 명인가' '다른 학생들 연락은 가능한가' '어떻게 나왔다' 등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급기야 같은 학교 2학년 정모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친구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여학생은 "못 들었는데... 아니요"라며 인터뷰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존한 여학생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쏟아냈을 뿐 아니라 인터뷰 도중 친구의 죽음을 알린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_한국기자협회, 2014.4.16.

〈세월호 사망 보험금 계산 MBC 심의 받는다〉

MBC는 지난 16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느냐"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 수혜 여부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 속 보상 액수를 말하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_PD저널, 2014.4.17

(1) 언론과 기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취재해 알려줍니다. 위의 두 기사에서 과연 언론은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을 취재한 걸까요?

(2) 위의 두 기사를 보며 많은 국민이 비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3) 큰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2. 다음은 책의 <단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기자의 ‘취재 행동’이 적절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차츰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님 사이에 섞여 숨어든 기자들을 찾아 내기 위해 애를 먹는 듯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아직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우리에게 서슴없이 질문 하고 몰래 사진까지 찍으려 했어요. 한번은 방문객으로 위장한 기자가 제 친구의 병실에 찾아든 적도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들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읽기 후 활동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 재난,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산불로 살던 집을 잃기도 하고, 지진으로 온 마을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큰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습니다.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를 쓴 저자는 세월호 생존자 친구들과 비영리 단체 '운디드 힐러'를 만들어 이들을 돕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돕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1.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

2. 내가 돕고 싶은 방법

침몰하는 영혼에 용기를,
가라앉은 사회에 영감을

_은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저자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일으켜나가는 인간의 존엄함

_정보라, <저주토끼> 저자

아홉 해 전 학교에서 보았던
이제 막 스물여섯이 된 아이들.
어쩌면 그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삶을 보여 준 용기

_김은지, 전 단원고 스쿨닥터

거대한 참사를 겪은 생존자가
지금의 아이들, 어른들에게 용기 내어 전하는 이야기